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http://www.daejeontoday.com)

제 2696호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 충남 학교 건물 내진설계 · 보강 매우 취약

2122개 내진 대상 중 내진 설계난 보강 577개에 불과… 부여 · 홍성 · 청양 지역 학교 매우 취약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학교 건물들이 지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122개 내진 대상 가운데 내진설계나 보강이 이뤄진 건물은 577개(27.2%)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내진설계가 완료된 학교 건물들은 ▲초등학교 1047동 중 276동(27.4%) ▲중학교 444동 중 124동(27%) ▲고등학교 631동 가운데 177동(28%)에 불과했다.

지역별 학교 내진보강 완료율은 아산 지역 학교가 183동 가운데 81동(44.3%)을 마쳐 내진보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천안(37.3%), 당진(34.6%), 태안(33.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여지역의 경우 내진설계가 완료된 학교는 106%에 불과했고, 홍성(165%), 청양(183%), 예산(21%) 순으로 내진보강에 열의했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에 내진설계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학교 내진 대상은 교실과 기숙사, 급식실 등 5곳으로, 충남에는 3804동의 학교 건물 가운데 558%가 진도 6.5 지진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진대상의 설계와 보강을 모두 마치려면 2030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산 부족하기에 충남지역 초중고 내진보강 비용은 2270억 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투자는 347억 원이 고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건물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만큼 대책 없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참사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도시지역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의 내진보강 완료시기는 교육부가 추정하는 2034년보다 4년이 앞당긴 것으로 최대한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지역별 완료율이 차이 나는 것은 신설학교가 많고 적음의 문제로 지역별 차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 올해 김장비용 안정세 지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월 중순 중·부부지방 김장을 맞아, 지난주에 이어 지난 15일 김장재료 구입비용(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을 2차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aT가 전국 19개지역 전통시장 18개와 대형유통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김장관련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5일 현재 전통시장은 22만8531원, 대형유통업체는 24만3139원으로 전주(8월/수) 대비 각각 1.5%, 2.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격 추이를 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20포기 기준 전통시장은 5만6144원으로 지난주(5만5977원)보다 0.3% 오른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4만4239원으로 전주와 비슷한 가격을 보였다.

한편, 도는 주요 증액사업 52건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에 상주 캠프를 꾸리고 국회일정에 맞춰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안회정 지사를 비롯한 도지휘부가 교대로 상경, 국비 확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추가로 증액해야 할 사업으로 나눠 충남도 현안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궁 부지사는 복지 중심 예산편성 분위기 속에서도 SOC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번 남궁 부지사의 방문에 이어서는 오는 21일 안회정 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비 확보전에 힘을 들이고 있다.

김정한 기자



##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부지사도 ‘한 몫’

남궁영 행정부지사도 국회 방문… 도 현안사업 증액 건의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6일 국회를 찾아 충남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종력력을 기울인다.

남궁 부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로 상경,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과 예결소위 위원인 어기구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및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도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증액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 부지사는 장

항선 복선전철 예타 통과 및 실시설계비 50억 원과 옛 도청사 국가매입 80억 등 52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7438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남궁 부지사는 복지 중심 예산편성 분위기 속에서도 SOC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번 남궁 부지사의 방문에 이어서는 오는 21일 안회정 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비 확보전에 힘을

들이고 있다.

송병배 기자

### [포항지진] 관·학·연 합동 발생 원인 현장조사 착수

기상청은 포항 지진(규모 5.4)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학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진앙 주변 지역에 있는 기존 관측망 외에 40곳(기상청 9곳·한국지질자원연구원 6곳·부산대 2곳·서울대와 부경대 20곳)에 이동식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해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관측할 계획이다.

이는 규모 2.0이하의 미소지진 관측과 지진활동 정밀 분석을 통해 입체적 지진분포도를 작성하고 지하 단층구조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진을 일으킨 단층의 형태, 움직인 방향을 분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일본 니가타 지진 당시에도 지진 분포를 이용해 지하 단층구조를 추정한 바 있다.

또 기상청은 지진특화연구센

터로 지정된 경북대와 공동으로 진앙 주변에 대한 종력 및 자력 분석과 지진피해에 근거한 진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로 얻어진 여진의 정밀 분석과 통합 분석을 통해 이번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 수시 · 정시 1주일 연기… 12월12일 성적 통지

교육부,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 … “학사일정 치질없게 만전”

교육부가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대입일정 조정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후속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수능 연기에 따라 대입전형 일정도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대학 입학전형 실시 및 학사 일정에 치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주 주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면접 등 수시모집

일정을 1주일씩 연기한다. 수능시험 이후 이의신청, 정답확인 등 일정 또한 1주일씩 순연할 예정이다. 채점기간은 현재 19일에서 18일로 단축해 12월 12일까지 학생들에게 성적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시 일정도 1주일 순연하되 주가모집 일정을 조정해 대학 입학과 학사일정에 치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진 피해지역 수험생의 학사관리, 심리안정 지원 및 수험준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6~17일까지 포항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휴업을 결정, 안전점검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수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시학원,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수능 연기에 따라 학원을 연장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고3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내 인근지역의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을 무료로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심리적 치유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지역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하겠다”며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상담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재수생 등이 연기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춘란 차관은 “이번 수능 시행 연기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 조치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기된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수능시험 연기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자기계발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문화공보과 권택규 등 6명은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자기계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는 나=기족=직장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신개념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경청하여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 발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문화공보과 권택규) ▲나는 ‘리얼맘’(평생학습

과 김혜진)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환경과장 원윤) ▲이기석의 지기소개서(건설과 이기석) ▲

일과 삶의 연결고리, 그것의 밤견!(운동동 고아라)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판암1동 김현율) 한 제목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심사 결과는 판암1동 김현율 최우수상, 용운동 고아라·평생학습과 김혜진 주무관이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고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우수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자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영호기자

##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센링 맥주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PALE LAGER

CHEERS!  
KOREA





지역의 재난컨트롤타워 10곳 중 4곳 지진 무방비

## 박남춘 “상황파악 · 응급대응 미흡”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 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 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12월 기준으로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71개소 중 내진 확보된 곳은 174개소로 내진율은 64.2%에 그쳤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0%,

전남 37.5%, 강원 42.9%,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 53.8%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9.7%, 인천 75.0% 수준이었고, 서울은 59.4%로 평균 하위로 확인됐다.

현행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는 자체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발생 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

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143억원 증액인을 통

과시킨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또다시 55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커진 상황에서, 이를 통해 해야 할 지역 대책본부 및 상황실의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상황파악 및 응급대응의 미흡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세종시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준공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이 16일 준공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신도시와 읍면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농민이 1만 5000명(5.4%)에 이르며, 그동안 세종시는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4년 9월 '경강한 시민,

행복한 농민, 함께하는 세종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싱싱장터 도담점'

은 하루 평균

매출액이 4000만원, 참여 농민

700명, 회원 수 2만 2000여명으로

완전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싱싱문화관은 농민과 도시민이

신뢰와 배려를 통해 로컬푸드 운

동을 생활문화로 완성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로컬푸드 운

동이 이제는 단순하게 농산물을

사고 파는 단계를 넘어, 소비와 음

식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생활

속의 문화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

금을 선지원하고, 내진 보강사업

조기 완료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

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체험중심의 재난대비 교

육 · 훈련 강화 등 안전 위협요소

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행 · 재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김 부총리는 "학생의 안전을 위

해 '수능 실시 1주일 연기'

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수험생과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증장기적인 대처는

기상청을 포함한 중앙부처들의 숙

제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

하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증장기적인 대처는

기상청을 포함한 중앙부처들의 숙

제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

하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예진의 예

측, 분석, 관리, 이게 우선 급하지

만 활성단층 조사를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동남부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조사 범위를 더 깊게 가져가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런 점과 관련해 내

년도에 예산 반영이 기대만큼 돼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회와 협

의해복구를 포함해 재난안전 대책

예정이다"며 "마찬가지로 피해복구

리듬은 재난안전 대책에 포함해 재난안전 대책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피해복구는 시민들 지원

이전에 포함된다"며 "재난안전 대책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전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차질없이 보강하고,

2019년까지 전 원전에 대한 스트

레스테스트를 계획대로 실시할 예

정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한국수

력원자력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

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의 점검 이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업무협약식 · 충남경찰청장 초청강연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충남통일관 강당(충남 광주시 무령로 소재)에서 충남경찰청과의 민 · 경 협력을 통한 치안 거버넌스 확립과 범죄 예방 활동 및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원 충남 경찰청장, 육종명 공주경찰서장, 최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회장, 어머니포순이봉사단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협력할 업무영역은

범죄예방활동 및 여성 ▲아동 ▲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사업, 보안 안보홍보 활동 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기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업무 체결

했다.

최대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질서 준수는 우리사회 상호간 신뢰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라며 "상호간 협력해 성숙한 선진사회 구현과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김재원 충남경찰청장은 '경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특강 전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대해 감사장 수여도 진행했다. 송병복 기자



특허출원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 멘토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고준민 센터장은 "한밭대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영 총장은 "이번 기술이 전은 대학의 우수기술을 시장에 진출시켜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신학협력단과 연계해 한밭대의 교수 · 직원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IP사업단은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사업', 'IP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사업', 'K-ICT 3D프린팅 대전센터 운영사업'과의 연계,

라며, "다가오는 2018년에도 유구한 역사와 위대한 문화, 수려한 자연환경과 시민들의 역량이 함께한다면 공주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백제문화제 평가보고를 진행한 공주대 학교 유기준 교수는 "이번 백제문화제는 시민 축제, 역사문화축제, 경제축제로 개최되며 8일간 177만명의 관광객이 공주를 찾아 803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 국내에서 세계 중심으로 한발 다가서 글로벌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는 이날 백제문화제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유관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업체 및 관계자 등 31명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해 현장적인 지원에 대한 고마운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제문화제 입점업체인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1천만원, 웅진골맛집 입점업체 1천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업체 2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에 기탁해 주위를 훈훈케 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 제63회 백제문화제 성과 ·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개최 보고회

## 홍보 통해 시민 참여 유도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15일 문예회관에서 제63회 백제문화제 성과 및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제63회 백제문화제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 시민 자긍심 고취와 함께 앞으로 백제문화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가오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시덕 시장과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이 함께 만든 위대한 결과



김정환 기자

## ●정정●

유공학교전담경찰관 표창장수여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7일 오후 2시 시교 육성 첨경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유공 학교전담경찰관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17일 오전 9시 엑스포광장에서 열리는 제9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에 참석, 오전 11시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2017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 제65차 동구포럼



한현택 동구청장= 17일 오후 3시 대전대 학교에서 열리는 제65차 동구 포럼에 참석.

## 제13기 뿌리아카데미 수료식



박용갑 중구청장= 17일 11시 30분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3기 뿌리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 한민시장 김장문화제



장종태 서구청장= 17일 오후 2시 한민시장 제2주차장에서 열리는 '한민시장 김장문화제'에 참석.

## 지원금 전달식



허태정 유성구 청장= 17일 오전 10시 행 복사랑방에서 열리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

## 일자리 창출 MOU 체결식



박수범 대덕구 청장= 17일 오전 9시 50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형건축 공사장 일자리 창출 MOU 체결식에 참석.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력입니다.

##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 대전

市, 경로당 대상 미니태양광·태양광 발전소 건설 지원 사업 등 추진

## “전기요금 부담 상당부분 해소”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거주 차 상위 계층과 어르신들 거주 경로당 대상으로

각각 미니태양광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대전시가 지난 7월 한

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LG전자(주)는 각각 일정 예산과 기금 등을 출연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사업 관리 및 발전소 시공 후 시설운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공기압 및 시민단체 협력 속에 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사업을 통해 관내 임대아파트 거주 차상위 계층 160세대, 도안 1단지, 11단지 아파트 옥상 및 관내 경로당 10여 곳 등에 250W급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750W급 태양광 발전소 등이 무상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와 경로당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량이 월 약 5,000 kWh에 이를 것"이라며 "임대아파트 거주 세대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저소득 서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등 연료비 지원 외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연계한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도 지역 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 속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이 사업을 위해 대전시, LH, LG전자(주)는 각각 일정 예산과 기금 등을 출연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사업 관리 및 발전소 시공 후 시설운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공기압 및 시민단체 협력 속에 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사업을 통해 관내 임대아파트 거주 차상위 계층 160세대, 도안 1단지, 11단지 아파트 옥상 및 관내 경로당 10여 곳 등에 250W급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750W급 태양광 발전소 등이 무상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와 경로당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량이 월 약 5,000 kWh에 이를 것"이라며 "임대아파트 거주 세대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저소득 서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등 연료비 지원 외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연계한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도 지역 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 속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 첫이기는 자유학기제미디어교육



송병배 기자



## 새마을운동중구지회, 해외협력사업 성료

## 식수용 우물·학교 도색작업 완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지도자중구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인사는 죄안나르 군수, 경찰청장, 교육감, 면장, 학교장, 군청 관계자 2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 우물 준공식을 가졌다.

프레네쁘레이군 죄안나르 군수는 "새마을중구지회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 면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정신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송병배 기자

10개, 배구공 5개, 연필 3000支, 컴퓨터 2대 등을 기증했다. 이에 프레네쁘레이군에서는 중구지회에 감사장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했다.

중구지회를 대표해 김연대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레네쁘레이군 죄안나르 군수는 "새마을중구지회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 면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정신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송병배 기자

## 유성구 2018년 블로그기자단 모집

## 축제와 명소·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 자유롭게 포스팅

대전 유성구가 2018년을 함께 할 '제8기 블로그기자단'을 모집 한다.

구에 따르면 구민소통 및 구정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의 신입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발된 기자단은 내년 1년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성구의 축제와 명소, 문화 등 유성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포스팅하게 된다.

또 주민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은 물

론 페이스북과 등 SNS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기자단은 사진과 기사, 웹툰, 동영상, 캐릭터리뷰 등 다양한 분야에 25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대전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대전시 소재 기업 직장인 및 학교 재학생으로 국적과 연령, 성별에 제한은 없다.

신청은 12월 8일까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링크를 확인,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실(☎ 042-611-2157)로 문의하면 된다.

박봉관 기자

구 관계자는 "유성구 공식 블로그는 방문자가 350만 명을 넘어서며 주민과의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유성의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유성구 공식 블로그에는 총 2,600건의 기사가 포스팅 돼 있으며, 최근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봉관 기자

"스탠바이~ 큐!" 신호와 함께 춤을 추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진다. 뷰파인더 속 영상을 보며 디귿 활영 장면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시무진지하다.

바로 시장자미디어재단 대전시 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흥미애 이하 대전센터)가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시골학교 가다' 프로그램을 통해 당진 서야중학교 학생들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리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교감 김지철)과 협력해 이를 동안 뉴스·뮤직비디오·단편드라마 중 제작하고 싶은 장르를 선택하여 조별 제작을 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8일 이를 간 교육을 마친 후 진행된 시사회에서 서야중 학생들은 "처음으로 카메리를 만져보고 장면을 연출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추억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사회를 함께 한 김인섭 교장은 "도심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방송·미디어분야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대전센터는 지난 달 23일 서천 동강중학교 17명을 시작으로 31일에는 송남중학교 1학년 38명 대상, 오는 20일에는 동영중학교 전교생 21명 대상, 내달 6일에는 부여 홍산중학교 1학년 2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 2차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회의 개최

## 추진상황·향후 사업 발전방안 공유

대전 대덕구 박수범(구청장)는 1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차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찬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주재하여 공무원, 구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여성·아동·다문화 단체, 구민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사업 발전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구는 2016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인증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50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10개의 신규 사업 밸류를 통해 여성안심 환경 조성과 지역

여성들의 소통 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주민참여단의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을 한 단계 앞당기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찬수 부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대덕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도출된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중구, 아파트 관리자·입주자대표회 임원 등 관계자 대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일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12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부는 관리사무소장, 경비책임자, 안전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과 안전교육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부는 입주자 대표회 임원,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도 참여가 가능하고 교육이 대상자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뉘어 실시되는 것에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중점을 두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중구 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71개소가 해당된다.

김태선기자

## 따뜻한 겨울나기 방문 서비스 시행

서구, 취약계층 60세대 방문 진단·대응방안 설명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다음 달 15일까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서비스'는 기후변화 상담사가 취약계층 60세대를 방문해 한파 대비 주거환경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장종태 서구청장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도민의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 대표 이은희)에서 지원한 문풍지와 에어캡을 설치해주고, 내복,

무릎담요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구는 1812명이 기록한 '2017년도 상반기분 탄소 포인트인센티브 기부금' 2600여 만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에 내복을 지원하고, LED 조명 등 교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기부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실가스는 줄이고 온정을 나누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 시 겨울철 시민안전종합대책 수립

## 8개 분야 25개 추진과제 담아

대전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개인 43명·법인 36업체 등 총 79명으로 체납액 27억7100만원…체납액 징수 강화할 것

천안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웹엑스를 통해 공개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3명 11억3800만원, 법인 36업체 16억3300만원로 총 79명 체납액은 27억 7100만원에 이른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들로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의 '지방세심

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

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H씨로 1억2400만원이고 법인체납자는 B사로 2억5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8명(73.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9명(11.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7명(8.9%), 1억 원 이상 체납자 5명(6.3%)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3명(30.2%), 40대 7명(16.4%), 50대 13명(30.2%)이며, 60대 5명(11.6%), 70대 이상 5명(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리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구본성기자



## 아산시-베트남 닌빈성 사업 확대 검토

아산시는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닌빈성(省)을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복기왕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은 지난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아산맑은비 판촉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현지 13일에는 자매결

연도시 닌빈성을 방문해 경제,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 분야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시 대표단의 이번 닌빈성 방문은 양 도시가 2016년 7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올해 9월 베트남 닌빈성 인민위원회 응웬 티 탄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아산시 방문에 이은 것이다.

대표단은 방문 공식일정으로 닌빈성 정부 청사를 방문해 딘 반 디엔 성장과 트란 훙 쿠양 인민위원장 등 간부 공무원 10여 명과 환담했다.

딘 반디엔 성장은 이 자리에서 "아산시와 닌빈성의 긴밀한 우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와 닌빈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더 나아가 한-베트남 양 국가 간 교류를 한층 더 활성화하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며 농업, 통상, 문화, 청소년 인적교류를 통해 두 도

이산=리량주기자

## 이석화 청양군수 영농현장 방문

### 청양군, 틈새 전략작목 집중 확산에 주력



청양군이 석화 군수는 지난 15일 다양 한 틈새 전략작물을 밭을 보급해 부자농 촌 만들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틈

문했다.

이 군수는 다양한 틈새 작목을 전략적 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영농현

감 있는 영농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 다는 격려와 함께 틈새 전략작목을 집중 적으로 확산토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날 방문한 정산면 송학리 이영우(52)씨는 양봉장(1000평)을 운영하며 청 양군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 겨울철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 는 곱취와 프리지어(0.5㏊)를 실증 재배 하는 정산면 남천리 이주기(60)씨의 시 실하우스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및 소 득원 창출을 위한 마늘과 양파를 매면적(6㏊) 재배하는 남양면 대봉리 최병균(60)씨의 농장을 방문했다.

남양면 최병균씨는 "겨울철 노는 땅 을 이용하는 마늘(양파) 주산단지는 관 련 유통단체와 계약 재배 해 안정적으로 생산,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화 군수는 "부자농촌 만들기 프 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틈 새작목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농가 수 취가격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사 짓기 좋은 청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 홍성군, 광천 새우젓 토굴 '새 단장'

### 토굴별 고유번호 40개 부여·내부 LED 전등 교체 사업도 추진



홍성군 보건소(소장 조용희)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광천 토굴 새우 젓의 위생관리를 위한 토굴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 사업은 토굴의 위생상태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면거리를 제공하고 토굴새우젓의 적정 관리로 광천토굴새우젓의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 서다.

군에 따르면 광천 옹암리 일대 토굴 40개를 대상으로 토굴 외부의 문제작 13개소, 문 보수 8개소 등을 시공하였으며

각 토굴별로 고유번호 40개를 제작·부착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기 부족 했던 토굴 외부 전경을 정비하여 토굴의 위생적 관리 및 리모델링으로 광천토굴 새우젓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각 토굴별로 번호표를 부착하여 토굴의 효율적 관리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흥성군 보건소의 목표라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오는 11월말까지 토굴내부 LED 전등을 설치하여 토굴의 내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과 환류를 통해 광천토굴새우젓의 위생적 정비와 토굴새우젓의 이력체 및 인증 제를 통하여 광천토굴새우젓의 명성유지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광천토굴새우젓은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브랜드 대상을 받은 바 있는 만큼 홍성군의 대표 특산품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성군 토굴새우젓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활성암반토굴 속에서 숙성·보관시켜 자연 건강식품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광천토굴새우젓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4°C의 일정한 온도에서 약 3개월간 숙성시키기 때문에 맛과 향이 다른 지방의 새우젓보다 원동하다.

홍성=김정한기자

## 조폐공사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 아트 메달 출시

###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이은 세계 명화 시리즈 디움 아트메달 2호

한국조폐공사는 16일 고품격 '디움 아트메달' 세계 명화 시리즈 2호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을 출시하고 공사 쇼핑몰([www.koreamint.com](http://www.koreamint.com))과 충북 산회동양행 쇼핑몰([www.hwadong.com](http://www.hwadong.com))을 통해 선착순 판매한다.

공사 최초로 기획된 세계 명화 시리즈는 해당 작가의 초상을 고심도로 각인한 금·은 아트메달에 조폐공사의 기술력으로 작가의 작품을 커려 재현한 요판화를 결합시켜 품격 있는 케이스에 담은 제 품이다. 지난 7월에 선보인 1호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는 판매 당시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2호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 역시 수집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메달은 원형 금메달(31.1g, 순도 99.9%, 35mm, 프루트) 1종과 원형 은메달(40g, 순도 99.9%, 40mm, 엔티피니시) 2종 등 총 3종이다. 금메달은 스판드형 케이스, 은메달은 스판드형과 액자형 케이스 두 가지로 제작됐다.

일련번호를 매긴 금메달 1종 40세트,

은메달 2종 각 100세트씩 200세트 등 총 240세트로 소량 한정 제작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메달 세트 244만5천원, 은메달 세트 18만7천원이다. 16일부터 공사 쇼

핑몰([www.koreamint.com](http://www.koreamint.com))과 충북 산회동양행 쇼핑몰([www.hwadong.com](http://www.hwadong.com))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조폐공사는 '밤의 카페 테라스'(고흐), '양산을 쓴 여인'(모네)에 이어 '조디악'(무하), '모나리자'(다빈치), '포위'(부그로) 등 총 5종의 세계 명화 시리즈 요판화 세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 서산시 희망 2018 나눔 집중모금 캠페인 추진

서산시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을 위해 '희망 2018 나눔 집중모금 캠페인'을 추진한다.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 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돋는 이 캠페인은 성금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필 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 해 추진된다.

모금은 시 사회복지과와 각 읍면동에서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성금을 기탁하면 사랑의 열매를 달아준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시 문화

회관 소공연장에서 집중모금 행사를 연다.

읍면동별 집중모금 일정은 다음달 7일 성연면을 시작으로 ▲8일 지곡면 ▲11일 허미면, 부춘동 ▲12일 고부면 ▲13일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읍암면, 운산면 ▲15일 대산읍, 동문1동, 동문2동, 석남동 ▲21일 수석동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캠페인에서는 서산시에만 21 억원 가량이 모금됐고 다시 서산시에 24 억 8,000만원이 배분돼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쓰였다.

서산=김정한기자

## KT&G 포항 지진 피해 복구 5억원 긴급 지원

KT&G(사장 백복인)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해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성금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곧바로 전달돼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계열사인 KGC인 삼공사는 흥산수 1만병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수십차례 여진이 이어져 57건의 인명피해와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16일 오전 기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KT&G는 지난해 9월 경주지진 피해에 도 5억원을 지원했으며, 세월호 성금(15억 원),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원(3.5억 원), 네팔 지진 피해 지원(2억원) 등 각종 재해에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KT&G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5%(약 728억원)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 이는 전경련이 밝힌 국내 200대 기업의 평균치 0.2%의 1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율 비율이 국내 최고 수준에 달한다.

김태선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흥대로 26-20 태동빌딩 T동

## 수능대박 응원 이벤트 '소원지' 걸기

순천향대, 응원의 메시지 전하기 위한 이벤트



순천향대는 2018학년도 대학 수능학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이 대학에서 재학생 홍보 대사로 활동하는 40여명의 알리미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이벤트는 15일~16일 KTX천안아산역사와 아산시 소재 설화고 정문 앞에서 수능대박을 기원하는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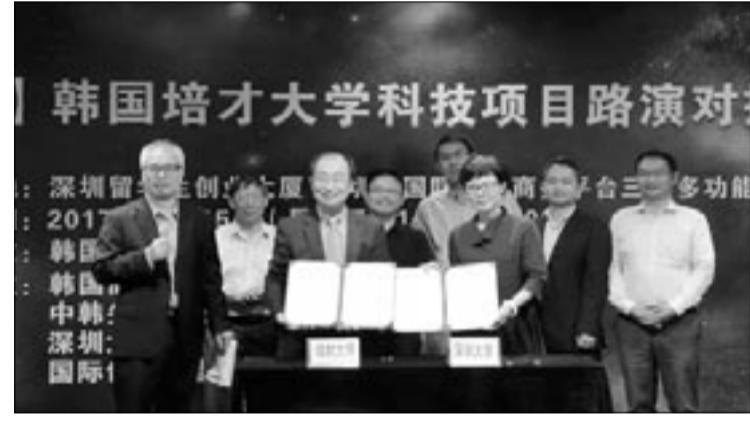
다.

KTX천안아산역사에서는 15일부터 16일까지 별도로 마련한 '수능대박 이벤트 벽(Wall)'을 설치, 이곳에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소원지를 걸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6일에는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설화고 정문에서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고3수험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이벤트를 갖는다.

아산=리량주기자

## 배재대 예비 창업자들, 중국 시장 공략

창업교육 등 골자로 한업무협력 진행 등



배재대 예비 창업자들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배재대 이노플리스캠퍼스사업단은 15~18일 중국 국가산업원인 선전하이테크신입원 등을 참관하고 현지 마케팅에 돌입했다. 사업단은 '중국 선전시 한·중기업 공개데모데이 및 기술설명회'에 배재대 학생 및 예비 창업자 12명의 우수 아이템을 홍보해 중국시장 진출 등 활로를 개척했다.

배재대는 지난해 이노플리스 캠퍼스사업에 선정돼 대전 지역 신입 특화분야인 IT·BT 육성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 대상 글로벌 창업동아리 발굴로 비즈니스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기업 과정들을 바탕으로 현지 마케팅과 유력 바이어 관리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정복기자

## 오비맥주, 생수 및 긴급 구호물품 전달

희망브리지 통해…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생수 1만병 긴급 지원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포항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수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가 지원 성금으로 마련한 기부금으로 약 1만 병(2ℓ 기준, 약 1800박스)의 생수를 지진피해 발생 지역 주

중국 현지에서 열린 공개데모데이 및 기술설명회에선 예비 창업자 및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 소개와 1대 1 상담도 진행됐다.

또 배재대 창업지원단과 선전대학 기술이전센터 간 업무협력도 병행해 글로벌 창업에 뒷받침 됐다.

이 자리엔 USB 발명가, 투자·자본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투자상담 열기를 더했다. 또 배재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들이 개발한 실루레이트 분해 니들 패치나 회전식 샤브샤브 기구 등이 소개됐다.

이후 배재대 이노플리스캠퍼스사업단은 1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17 차이나 하이테크페어 전시회 참가 및 기업네트워크'를 참관해 수입국 트렌드 분석 및 시장 개척방안을 논의했다.

이정복기자

민들에게 긴급 구호품과 함께 지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구호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병기자



보령 성주초, 성주지역 아동돌봄센터와 소통의 날 운영 성주초등학교(교장 윤여숙)에서는 14일 성주 지역 아동돌봄센터와 함께하는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면세점 매출 2016년 12조 돌파… 경영난 심각

## 2016년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7.7% 대기업, 대기업 편중 여전해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드보복 등으로 면세점 경영난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면세점 매출액은 12조를 넘어섰다.

면세점 매출액의 대기업 편중현상도 여전해, 2016년 매출액의 87.7%를 대기업이 차지했다. 한편 올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주얼지 생활건강의 화장품 '후' 이었다.

중국 시드배치 문제로 관광객이 감소했지만 2016년 면세점 매출은 총 12조 2,757억원을 기록했다. 면세점 총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하지만 매

출액 증가에도 면세점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면세점이 보따리상에 제공하는 파격적 할인혜택과 송객수수료지급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잇따른 경영악화로 사업을 철수한 면세점은 대기업 1곳, 중소기업 3곳으로 총 4곳에 이른다.

또한, 정부의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매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 면세점 매출의 87.7%는 대기업이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6%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뒤를 이어 설화수가 3,649억

면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은 2013년 명품 의류에서 2017년 현재 화장품으로 바뀌었다. 당초 2014년까지 매출액 1위는 루이비통이었지만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설화수, 후가 번갈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판매실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올해 8월까

지의 매출액 상위 30위 브랜드 중 18개를 화장품 브랜드가 석권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는 주얼지 생활건강의 '후'로 총 3,650억 2,600만원을 판매했다.

뒤를 이어 설화수가 3,649억 4,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패션 브랜드인 에르메스가 매출액 2,159

억 80만원으로 3위였다. 4위는 디올 코스메틱으로 매출액이 1,757억 2,400만원이었고, 5위는 에스티로더로 1,754억 2,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허울뿐이다. 특히나 중소·중견 면세점은 여행객 급감, 대기업과의 경쟁, 중소·중견기업간의 경쟁, 높은 임대료 부담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이 공생하고, 면세점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따리상 매출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자연휴양림 내에서

### 복합경영 가능

산림청에서도 자연휴양림 내에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임산물 재배 생산과 체험 등 복합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림복합경영이란 자연휴양림의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생산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형태이다. 자연휴양림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산림청 소관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기존에는 숙박·야영·산책 등 휴양 관련 시설이었지만, 2015년부터 산림복합경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임산물 재배와 유리온실,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등과 같은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앞으로 임업분야의 6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성범기자

## 발명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리드한다

2017 발명교육컨퍼런스 11월 17~18일 2일간 대전서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11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2일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2017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우수 발명교육 모델 및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명교육'이라는 주제로 기획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를 통해 걸쳐 총 4개의 세션이 운영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발명교육 담당

장학관·장학사, 발명교육센터 교사, 발명영재학급 및 특성화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17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과 「전국 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개최된다.

금년의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발명관련 경진대회에서 현재까지 50여 작품을 수상하는 등 발명 교육 및 발명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여가 인정되어 유병준 교사(충남 기계공고)가 수상한다.

또한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

대회」에서는 「발명 교육 활성화를 통한 발명인재 창출」이라는 연구주제로 발명교육의 학문적 연구 기반을 조성한 기여로 홍선의 교사(서울상암초)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발명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는 기조강연에서는 「발명교육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리드하라!」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회장부회장과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미래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인종래 국제 미래학회 미래정책연구원장이 주제의 특강이 진행된다.

박봉관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편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 아산시 온천천, 환경부장관상 수상

2017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컨테스트



아산시는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총 사업비 496억원을 투입해 죽은 하천을 되살리려는 일환으로 시작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통해 사업 시행 전 BOD가 45.5mg/L로 죽은 하천에서 2016년 BOD 0.8mg/L로 개선되었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과 생수 품질 복원, 복원 후 사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이산 온천천은 수질이 개선되고 생물 다양성이 확장되는 등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과 생수 품질 복원, 복원 후 사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이산 온천천은 수질이 개선되고 생물 다양성이 확장되는 등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과 생수 품질 복원, 복원 후 사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KBS 방송국, 13일(월)에는 TJB 방송국을 1시간 30분 정도 둘러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KBS 최선종 기자, TJB 최승희 아나운서의 안내로 공개홀, 뉴스센터, TV주조정실, 라디오 스튜디오 등 방송국 주요 시설에 대한 견학 후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체험, 앵커체험 등 직접 아나운서가 되어 진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에는 미래의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선배로서 아낌없는 조언도 해주었다.

## 홍성교육지원청, 박재희 박사 초청 특강 운영

관내 학부모 및 지역주민(희망자) 200명 대상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은 오는 11월 30일(목) 10시 홍성도서관 강당에서 관내 학부모 및 지역주민(희망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7 명시화 함께하는 인권·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강의에는 EBS 손자병법, 3분 고전, 고전의 대문 등 저자로 알려진 박재희 박사의 「고전에서 배우는 인간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고전 속 자녀교육의 지혜를 배우고 가정과 학교-지역사회 속에서 인간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시대를 활용하는 미래 인재를 양

성을 준비하고자 한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은 2500년 전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와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성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명시화 특강 참가 신청방법은 홍성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홍성 교육부 모바일 지원센터 신청하면 된다.

홍성=김정환기자

이정복기자

## 청양군,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 방안 모색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 개정, 지원금 확대… 인구증가 시책 군수 특별지시사항 검토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속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해 인구증가를 이루고자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 등 획기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미혼처원 공간내 형성 및 인구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획기적인 인구증가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역개발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혼 및 저 출산 문제에 대응, 관내 미혼남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율려 입양가정 대상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인구시책으

로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 건설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업 및 공장·농공단지를 늘릴 수 있는 방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충남1위 평가**  
지난 15일 천안 싱글리조트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의 경연대회에서 도내 16개 소방서가 경합한 가운데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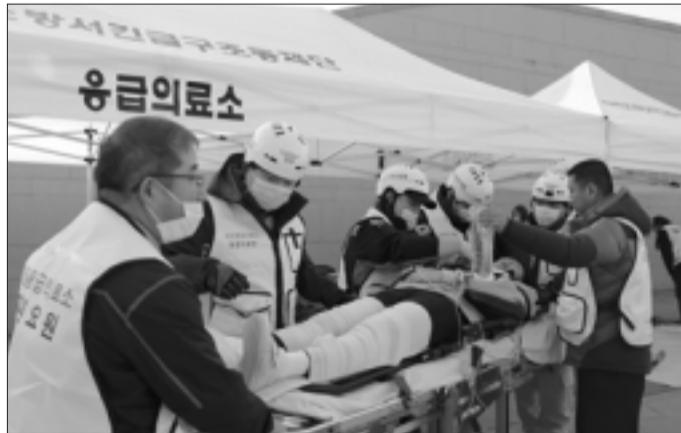
**공군 20전비 군무원단, 연탄 나눔 봉사 펼쳐**  
서산시해 미면에 위치한 공군 제20전비행단(이하 '20전비') 군무원단이 16일 십 시일반 모든 성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주서 신관지구대,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활동 펼쳐**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대장 최순자)는 16일 공주 신관지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학대, 기정폭력 근절 전단지를 배부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세종소방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차단훈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건)는 15~16일 소방서 후련타워에서 특수구조단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차단훈련을 기졌다. 이번 훈련은 실제와 유사한 탱크, 파이프 밸브 등을 설치하고 누출되는 고압의 액체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산소방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대응훈련**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지난 15일 15시부터 현충사(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소재)에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여군 보훈회관 개관식**  
부여군 보훈회관이 16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강윤진 보훈청장을 비롯해 이용우 부여군수, 이경영 부여군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성인남녀 81.6% “우리나라, 지진 ‘사각지대’”

## [인구르트] ‘지진에 대한 공포감’ 대해 설문 조사 결과

그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대한민국 성인남녀들의 ‘지진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한반도는 지진의 사각지대라고 답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상황에 ‘남의 일 같지 않다’, ‘두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9.2%

‘그렇다’고 답했고,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1.6%가 ‘아니다, 한반도 역시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답한 것.

이렇듯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남녀의 78.3%는 ‘지진 발생 시 생각해 둔 나만의 대처법이 없다’고 답했다. ‘대처법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22.5%는 ‘책상 밑에 숨기’라는 획일적인 답변을 제시해 놀라움을 주었다. 이

러한 배경에는 지진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던 뒷얘기인 듯하다. ‘지진 대처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6.3%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중·고등학생 시절에 배웠다’는 의견이 전체 280건의 응답 중 81%(227건)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범국민적인 지진대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8.9%의 응답자가 ‘지진대

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20.2%, 0.9%에 그쳤다. 이어 ‘가장 필요한 대비 방안’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민간주택의 내진 설계 보강’(88.7점)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유아·초등기관의 지진대처교육’(82.2점), ‘공공기관의 내진설계 보강’(81.1점), ‘중·고교 대학기관의 지진대처교육’(80.1점) 등의 응답이 제시되었다. 김태선기자

## 행복청, 도심 교통흐름 개선 위해 ‘비보호 좌회전’ 확대

### 9개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 운영할 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인근 다솜2로·다솜3로와 소담동 남세종로 등 9개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와 교통흐

를 단절해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운전자는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 과속·신호위반·교차로 꼬리 물기 등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에 따라 행복청·세종시·세종경찰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

간을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도입지역은 차량 통행량이 적고 편도 2차선 이하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선정했으며, 운행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운영시기는 표지판,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한 후, 소담동 남세종로 3개 교차로는 2017년 11월말에, 정부세종청사 인근 다솜2로·다솜3로는 2017년 12월말에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 충남공동모금회, 도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 저소득가구 및 소규모복지기관에 월동난방비 11억 5백여만원 지원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남지역의 저소득가구 4000세대와 소규모복지기관 313개소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총 11억 5백여만원의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예상되는 충남지역 저소득층 4000세대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하며, 자체차 등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313개 기관에 최저 80만원부터 최고 120만원까지 총 3억 5백여만원을 지원해 충남도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돋는다.

충남모금회 이관형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낼 것 같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깊어진 시름을 덜고, 따뜻한 이랫모에서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

내는 데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정성과 마음이 모여 나눔으로 행복한 충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특별사법경찰관 ‘맹활약’

최근 자동차관련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팀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낮낮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금년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를 운행 및 유통하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남모르게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년 4월부터 아산, 천안 등지에서 타인명의 고가 외제차 무보험운행 및 대포차 유통 행위를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명의지의 前동거남과 추가로

2명의 혐의자를 인지하고 이들의 휴대폰번호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3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운행 하던 차량을 본래 명의자에게 되돌려 주어 차량 소유자는 기습을 쓸어내리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여명의 대포차 운행 및 유통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매년 800여건이 넘는 자동차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며 아산시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팀은 급증하는 무단방지 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등과 더불어 방치행위자, 무보험운행자 그리고 무등록정비 및 작업법률을 초과하는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텁장을 비롯해 5명의 팀원 모두가 특별사법경찰증을 발급받고 법무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쉼없는 업무연찬과 역할분담을 통해 팀을 재정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태안소방서, 겨울철 노인시설 화재예방 당부 나서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겨울철 대형화재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자 나섰다.

노인시설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소방시설점검 소홀 및 소방안전관

리의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노인시설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실전 같은 대피훈련을 통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키워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초동조치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이 필요하며, 긴급 피난할 수 있는 슬라이딩 계단 및 대피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하다.

태안=김정한기자

### 지진 관련 학교시설

#### 특별안전점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1월 15일 발행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대전 지역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긴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동·서부교육지원청과 같이 학교연합으로 점검하며, 11월 16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 이를 간 교육청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이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이번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 학교건물의 안전성과 피해 여부 및 특히 대입수능시험 장소로 예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3위



###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3위



### 예산소방서, 주유취급소 관계자 간담회

#### 관계자들 대상…안전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예산소방서, 주유취급소 관계자 간담회

예산군 주유취급소 관계자 20여명이 예산군 주유취급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위험물사고사례 원인과 예방대책, 겨울철 화재사고 대비 안전관리 당부 및 개정된 법령 설명 등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예산소방서는 차량화재 저감을 위하여 위험물안전 관리법 안전관리 준수,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협조 및 주유중 엔진정지사항 등을 당부하였다.

임재철 예방교육팀장은 “주유취급소의 화재발생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삼중하는 만큼 관계자들의 경각심과 평상시 절제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 동정

## 간담회



김홍장 당진시장  
=17일 오후 6시  
보령한화리조트  
에서 열리는 당진  
땅수호범시민대  
책위와의 간담회

에 참석.

## 태안군민 원탁토론회



한상기 태안군수  
=17일 오후 1시  
30분 군민체육관  
에서 열리는 '태안  
군민 원탁토론회'

에 참석.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석화 청양군수  
= 17일 오전 9시  
울산 롯데호텔에  
서 열리는 전국 시  
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총회에 참  
석.

온양3동 행복기움 정기월례회의 가져

아산시 온양3동 행복기움주진단(단장  
홍언순)이 지난 15일 온양3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실시했다.

홍언순 행복기움주진단장은 인사말  
에서 "지난 10월 21일 온양3동 문화체  
육 한마당에서 동민들의 식사를 준비하  
기 위해 고생하신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누  
기 등 낸은 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대책으로 '따뜻한 겨울 행복한 동행' 이  
란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주요 안건으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150  
가정 김장나누기, 11월 24일 행복기움주  
진단 워크숍, 11월 28일 성과보고회 등  
에 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세종상사 이정호 대표의  
후원으로 11월 29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여 명에게 식사와 생필품으로 전달  
하기로 결정했다.

김형관 온양3동장은 "나눔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같다. 행복기움  
주진단의 회성으로 온양3동 주민이 따  
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지금 행복기움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단원 영입을 통한 단원 확대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흥대로 26-20 대전빌딩 7층

## 郡鳩인 갈매기 형상화 '안흥나래교' 개통

우/리/동/네

"당진형 청년정책 청년들의 보약이다"

## 김홍장 시장, 아시아미래포럼 청년정책 소개

김홍장 당진시장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미래포럼에 참석해 당진형 청년정책을 알렸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 일자리와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세션 2.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 충남 연구원'의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 시장은 ▲설자리(제도·기반·참여) ▲일자리(취·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커뮤니티) 등 4개 분야에서 추진 중인 31개 특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설자리 분야 대표 사업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청년정책 추진단 구성,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충남 최초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복합지원센터인 당진청년센터 설치 등을 꼽았다.

특히 일자리 분야 대표사업인 맞춤형 청년인턴제와 청년창업지원,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등 세 가지 사업은 단순 사업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타자자체와 기관으로 확산이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살자리 분야의 아동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방과후 마을학교와 놀자리 분야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당진시 청년문화제 등도 대표적인 청년사업으로 소개했다.

김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맹든 곳이 너무 많고 종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청년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청년 문제는 종합처방약으로 치료해야 하고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보약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태안군, 사업비 174억 원 투입... 신진도·안흥항 관광발전 기대

태안군 균흥면의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가 될 안흥나래교(교사진)가 15일 개통식을 통해 웅장한 모습을 선보였다.

군은 15일 한상기 군수와 이용희 군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흥면 평죽리 안흥내항에서 '안흥나래교'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근흥면 신진도리와 평죽리를 잇는 안흥나래교는 총 연장 293m(시점부~종점부), 교량 보행거리 394m의 2경간 연속아치 인도교로, 총 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 2015년 8월 착공해 2017년 10월 31일 최종 준공됐다.

군은 해상인도교 명칭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안흥지역 갈매기의 날 개를 뜻하는 '안흥나래교'의 교명을 확정지었다.

안흥나래교는 군조(郡鳥)인 갈매기의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각각 45m와 38m 높이의 두 아치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내며, 다리에 오르면 탁 트인 서해바다와 신진도 및 안흥항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안흥나래교가 내년 균흥면 신진도에서 개관될 예정인 '서해수중유물 전시관'과 인접해 있어 태안군 해저유물의 관광자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며, 태안군의 명소로 폐오르고 있는 신진도 및 안흥항의 관광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통식은 균흥풀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내빈소개, 경과보고, 표창패 수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로 치러졌다.

한상기 군수는 "안흥나래교가 개통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자들 및 지역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미래를 향해 나래를 활짝 펴고 힘차게 비상하는 안흥나래교가 서해안권역의 중심지였던 안흥내항과 지역 주민의 희망을 품고 태안의 앞날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준비 본격화

## 당진시, 비티칸 방문해 로마 교황청 참여 건의



돌입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심병섭 부시장과 인효식 시의원, 솔뫼성지 이용

호 신부 등 당진시 대표단이 현지 시각 기준 15일 오전 로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서 대표단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교황청의 행사 참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뫼성지 재방문을 건의했다.

대표단의 제안에 대해 교황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2021년 행사 방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표단이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방문 당시 만찬 주로 사용됐던 면천두견주(국가무형문화재 제86-2호)를 전달하자 교황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 방문단

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미리 행사를 준비해 교황청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6일에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회의에도 참석해 행사 일정을 논의하는 등 실무간 교황청의 행사 참여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건 신부(세례명 안드레아)는 1821년 8월 21일 당진에서 태어나 1846년 9월 16일 순교했다.

이후 1857년(월종 8년) 교황청에 의해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되었고 1925년 다시 교황청으로부터 시복(謫福)되어 복자위(福者位)에 올랐으며, 1984년 4월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다시 시성(謫聖)되어 성인 위(聖人位)에 올랐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목면 치성천 환경정화활동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16일 여성자원봉사회와 함께 금강 치성천 주변 도로와 하천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는 금강변 일대에 방문객(낚시자)이 증가해 생활폐기물 누적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훼손된 경관을 복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은 금강 치성천 하천일대의 쓰레기를 줍고, 쉼터 쓰레기통을 비우는 등 환경정화에 힘쓰며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황우원 면장은 "쾌적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의 정줄이자 보금자리인 금강의 경관을 보존코자 헌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면 여성자원봉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독거노인 밀반찬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비봉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차미숙)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를간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김장을 담근 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의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원 54명이 참여해 총 700포기의 김장을 담근 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의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절기 김장을 하지 못하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70여세대에 전달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 친절마인드 향상위한 자체교육

## 아산시 도로과, 전화응대방법, 방문민원 응대 요령 등

아산시 도로과(과장 김효섭)는 부서 전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전화응대방법, 방문민원 응대 요령 등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효섭 과장은 최근 수일간 직원들의 전화응대와 방문민원 응대의 잘된 점과 미진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민원의 대부분이 생활불편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에서 발간한 전화응대 표준 메뉴얼을 책상위에 부착해 준수하고 방문민원은 사무실 들어서는 단계부터 공손한 인사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동절기를 맞아 육교 모래주머니 비치, 자전거대여소 점검, 시설공사 조속한 완료 및 공사 중지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판단, 최종퇴청자 전열기구 확인, 북무철저 등을 교육한 후 '도로과 피아팅'을 외치며 민원에 감동을 주는 부서가 되자며 다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태안군 지역발전 이끌 신규공직자 역량강화

## 신규 임용 공직자 60명 대상 '신규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태안군이 지난 15일 균흥면 한화호텔&리조트에서 2016~2017 신규 임용 공직자 60명을 대상으로 '신규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신규 직원들의 새 출발을 격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태안군의 미래를 염려 갈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과장이 기획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여기레크리

에이션협회 이선우 전문위원을 초청해 '행복한 삶을 위한 힐링 웃음'을 주제로 교육에 나서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상기 군수는 직접 강사로 나서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시대 개막을 위한 5대 군정목표를 소개하고 군민 중심 마인드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해 신규 공직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무교육에 참석한 박진희 주무관(33)은 "'태안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한상기 군수는 "행복한 태안 시대 개막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 계룡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4명, 법인 2개소·지방세 체납액 1억 3200만원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록)는 지난 15일 2017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된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는 앞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명, 법인 2개소에 지방세 체납액 1억 3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고의적 은닉재산 추적 등 다양한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금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라는 간접적인 행정제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 가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 요실금예방관리교실 운영

서천군보건소,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실시

서천군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요실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요실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실금예방관리교실’을 운영했다.

요실금은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거나 화장실로 가는 도중 소변이 새고, 가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샌다면 요실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 부족, 창피해하는 인식 등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 요실금질환에 대하여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실금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였다.

서천군보건소에서는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 112명을 대상으로 요실금 바로알기, 요실금 자기 관리의 필요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안마을 등 9개소 경로당에서 매주 1회씩 6회 진행했다.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결과 소변을 침할 수 있는 자신감이 프로그램 참여 전 75.4%에서 80.4%로 5% 높아졌고, 일상생활 지장도는 4.8점에서 3.9점으로 0.9점 낮아졌으며 주민의 만족도 역시 90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재연 서천군보건소장은 “요실금은 장기간 치료나 수술을 필요로 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요구된다”며 “이번 요실금예방관리교실을 통해 요실금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요실금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시켜 농촌지역 여성들이 자신감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즐기시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부여군, 2회 걸쳐 400여명 대상 교육 진행

부여군(이용우군수)은 지난 15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린 이번 인권 교육은 2회에 걸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이해, 차이와 차별 구분법, 악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 등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도운 강사가 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화된 차별과 한국 사회에서 악자와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들이 차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악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담당한 군 관계자는 “직원들과 군민들 모두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길 바라며, 오늘 공유한 기본적인 인권 지식을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 ‘인구절벽 위기 극복’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

## 천안시,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천안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와 가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인구 여건, 주거, 전망 등의 분석을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전략과 지역 특성이 담긴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15일 시청 종회의실에서 ‘천안시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필영 부시장을 비롯한 본청 4급 이상 간부, 서북구 보건소장, 주요부서 과장과 팀장, 그리고 용역사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주여건개선, 일자리창출, 젊은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방향 등 다양한 문제와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요구했다.

이필영 부시장은 “연구기간의 단기성과 광범위한 용역범위를 감안해 연구용역의 범위를 압축, 진행하고 조속히 선택을 통한 인구정책 방향성을 도출해 달라”며, “천안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과 지역민의 의견도 수렴해 우리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반영하고 시의 5개년 로드맵 작성의 시금석이 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인구감소시대에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정책 시민공감 토크포럼을 ‘인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28일 개최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석자와 함께 인구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천안=구본성기자

동 정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구본영 천안시장= 17일 오전 9시 광덕 신홍창고에서 진행되는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을 방문해 격려.

가을 음악회



최홍욱 계룡시장= 17일 오후 4시 30분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참석.

금강철새여행 개막식



노박래 서천군수= 17일 오후 2시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열리는 2017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개막식에 참석.

종합정비사업 활성화 포럼



이용우 부여군수= 17일 오후 2시 삼정유스타운에서 열리는 부여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활성화 포럼에 참석.



## 서천군 폭력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8일 장애인 및 노인 18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장애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3곳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식증진과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노尽力의 일환이다.

서천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폭력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폭력 감수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대전기족성통합센터 이혁의 소장의 ‘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라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미영 장애인여성가족팀장은 “서천 지역장애인 및 노인의 성폭력 피해 예방과 균열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며 “최근 5년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76% 급증 하였으나 노인들의 수치심과 민감성 저하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므로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인 인식에 발맞추어 노인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이번 성폭력예방교육을 계기로 장애인 이용시설 및 노인 이용시설 등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성폭력상담소(041-956-8255) 또는 서천군 사회복지실 장애인여성가족팀(950-43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 보훈가족의 사랑방 부여군 ‘보훈회관 개관식’ 열려

##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착공해 올 10월 준공

부여군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이 드디어 개관식을 열었다.

지난 16일 이용우 부여군수와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군내 보훈단체장과 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그동안의 경과보

고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여군민회관 옆에 건립된 보훈회관(부여읍 사비로 49번길 9-17)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비 5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8억 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착공해 올 10월 준공했다.

부여군 보훈회관은 총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477.34㎡ 규모이며, 1층과 2층에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고 3층에는 대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현재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애국심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9개 보훈단체가 각각 허여져 있어 보훈회원 관리와 권익증진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보훈회관을 설립, 단체들

이 한곳으로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보훈가족의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축사를 통해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예우와 쳐우개선의 장으로 미래세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는 산실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라나는 후세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호국정신의 표상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계룡시 박지선 초청 ‘계룡시민 아카데미’ 열려

## 오는 21일 오후 7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록)는 오는 21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스타강사 박지선 개그우먼을 초청해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2017년 계룡시민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계룡시민아카데미는 시민 관심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시민의 꿈과 소통을 주제로 삶의 지혜를 얻고 힐링 하는 시간으로 보다 품격 있는 열린 학습의 기회를 제

공하고자 마련됐다.

2007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지선은 20대 여성으로서 화장을 뜯는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개그우먼으로서 분장을 하지 못해 더 웃기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한 이야기를 개그맨 특유의 입담과 유머로 솔직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계룡시민아카데미는 “꿈과 소통을 주제로 삶의 지혜를 얻고 힐링 하는 시간으로 보다 품격 있는 열린 학습의 기회를 제

일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42-840-2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10월 김미경 강사를 초청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논산시 국방대 가족과 함께하는 팜파티(Farm-Party) ‘성황’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5일 국방대학교 아파트내 마름방죽에서

임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팜파티를 개최했다.

농촌체험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팜파티는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촌체험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팜파티의 융합이다.

‘눔병침병 마름방죽에서 늦가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팜파티는 논산농산물 사이버미켓 팜포유 회원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6차 산업 농가형 가공상품판매와 다육화분, 드라이 플라워액자, 목공아트 전시 및 딸기고추장 만들기 체험, 유자청 만들기 체험 등 오감만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조주형 쉐프와 함께하는 토크쇼

이야기톡·음식톡은 고구마와 연근을 이용한 이태리 음식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늦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뮤직밴드 티나의 플룻연주와 건반 2종주, 클래식기타의 유틸리티 펌파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농가의 새로운 도농교류의 정으로 떠오르고 있는 팜파티는 농가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 화합의 장”이라며, “다시 한번 논산시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구는 재미, 나누는 재미를 만끽하며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대학교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 69만7207m<sup>2</sup>(21만여평) 부지에 3500여억원을 투입해 완공, 지난 9월 이전했다.

## 정

유구자카드섬유 페스티벌개막식



오시덕 공주시장= 17일 오후 5시 유구시장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유구 자카드섬유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 성주 나눔 바자회



김동일 보령시장 = 17일 오전 10시 성주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열리는 성주 나눔 바자회 및 주민자치프로 그램 발표회 참석.

##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주재



권현운 서산시 부시장= 17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학교 급식심의위원회를 주재.

## 충남교육장협의회 월례회



유영덕 공주교육 지원청 교육장= 17일 오전 10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리는 충남교육 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 종합학습발표회



조민행 보령 교육 장= 17일 오후 2시부터 육체초등 학교에서 개최되는 “꿈과 끄 끌 치는 옥계이야 기” 종합학습발표회에 참석.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 현대식 전통 가옥

1 원통가옥 대다

전통가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생활을 조화롭게 한 원통가옥입니다. 넓은 정원과 풍부한 자연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MODERN TRADITIONAL HOUSES



## 2 단층이 대다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생활을 조화롭게 한 단층 원통가옥입니다. 넓은 정원과 풍부한 자연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3 복층이 대다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정성을 현대화한 美麗 디자인.

한국 전통 가옥의 정성을 현대화한 美麗 디자인입니다. 옛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생활을 조화롭게 한 원통가옥입니다. 넓은 정원과 풍부한 자연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프로그램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10 명의
7:50 인간극장	7:00 아침이 좋다	7:20 놀랄법한 이야기	6:1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6:30 대구·경북·인천·부산·제주도 영상소식	7:00 두더지콩
8:25 아침마당	8:00 다큐멘터리 3일	7:50 역류	6: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모피와 구구들
9:30 KBS 뉴스	9:00 TV소설 꽃피어 달순아	8:40 생방송 오늘 아침	6:30 김영식의 영화대영화	7:40 이 앵스페인스팅글	7:40 행복비나리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40 여유만만	9:30 김기분 좋은 날	10:50 20주년 특집 2017 희망 TV SBS	8:00 뉴스와이드	8:00 두더지콩
11:00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0:50 인간극장 스페셜	11:00 MBC 파워매거진	11:00 2017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	9:00 열전동네방네	8:30 봄꽃과 함께
11:40 나눔의 행복, 기부	12:00 인간극장 스페셜	12: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0:50 2017 희망 TV SBS	10:00 행복비나리	9:00 열팅 피트2
11:55 U+D 한식	1:50 생생정보 스페셜	1:00 TV 예술무대 스페셜	11:00 2017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	11:00 최고의 오리비결	9:20 타오의 생생극장
12:00 KBS 뉴스2	2:55 후토스 - 월 아버린 숨	2:30 똑똑 키즈스쿨	12:00 SBS 뉴스	11:00 하니뿐인 지구	9:40 다문화 교부 열전 스페셜
12:30 영상앨범 산	3:20 타오르자마 버스터	3:00 응까소녀2	12:20 20주년 특집 2017 희망 TV SBS	12:00 굿뉴스	10:00 하니뿐인 지구
1:00 팔도밥상 스페셜	4:00 여유만만	3:30 드림주니어 베스트	1: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2:50 시청자뉴스	11:40 한국기행
1:20 TV비평 시청자 대스크	5:00 뮤직뱅크	4:00 잉 코르 MBC 스페셜	1:30 CMB 스페셜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12:00 EBS 정오 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2:20 열린채널	6:00 내시경	5:00 MBC 이브닝 뉴스	2:00 뉴스브리핑	13:40 행복지원 프로젝트	12:10 문화유산 코리아
3:00 2017 목포가요제	6:10 생방송 오늘 저녁	5:40 해피타임명곡광장 스페셜	2:00 화목단점기	14:00 시로토론 뾰로로	12:2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3:55 U+D 한식	7:00 KBS 뉴스7	6:10 생방송 오늘 저녁	3:00 굿뉴스	14:30 두더지콩	13:40 행복지원 프로젝트
4:00 4시 뉴스집중	7:35 특집다큐 2부작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7:15 들이온 복단지	4:00 미디컬 인	15:00 드래곤 길들이기	14:30 드래곤 길들이기
5:00 KBS 뉴스5	7:50 내 남자의 비밀	7:55 MBC 뉴스데스크	4:30 문학의 향기	15:25 정글북	15:25 정글북
5:10 동물의 세계	8:25 슈퍼맨이 돌아왔다	8:3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0 김영진의 집대성	15:40 썬드심 등원 프로젝트	15:40 썬드심 등원 프로젝트
6:00 6시 내고향	10:25 영화가 좋다	8:45 맹랑쇼 12.3	6:00 뉴스와이드	16:00 토닥토디 마음아	16:00 토닥토디 마음아
7:00 KBS 뉴스7	11:35 고백부부	9:50 예능드라마 보그람	7:00 시청자뉴스	16:20 그림을 그려요	16:20 그림을 그려요
7:35 특집다큐 2부작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12:45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00 VJ 특공대	7:30 절먹고 잘살고	16:30 플리워링 하트	16:30 플리워링 하트
8:25 미워도 사랑해	1:05 예능드라마 보그램 스페셜	11:00 고백부부	8:00 스포츠 클리닉	17:10 미사와 곰	17:10 미사와 곰
9:00 KBS 뉴스9	2:30 매드독	2:20 20세기 소년 소녀	9:00 뉴스와이드	17:20 이암스페이스 정글	17:20 이암스페이스 정글
9:40 시사기획 청-특집 경주 지진 1년, 천년 고도의 공포	3:30 돈꽃	3:30 돈꽃	10:00 김영진의 집대성	17:30 주사위 정 큐비주	17:30 주사위 정 큐비주
10:00 KBS 뉴스라인	4:45 나 혼자 산다	4:45 나 혼자 산다	11:00 팀라오디세이 제주올레	18:00 톡 보니하니 1	18:00 톡 보니하니 1
11:10 콘서트 7080			11:20 백종원의 푸드트럭	18:05 코트 지구를 지켜라	18:20 톡 보니하니 5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25 생생정보 스페셜	6:5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7:50 남북의 창	7:35 다큐멘터리 3일	7:10 경제매거진 M	6:10 다이노 코어	6: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6:30 통일 미리보기
8:30 시니어토크 황금연못	8:25 슈퍼맨이 돌아왔다	8:00 국제상 수상작 베스트 나의 이름은 산신혁	7:25 꿈의 왕국 소피 루비	7:30 운길상의 향기	7:00 운길상의 향기
9:20 KBS 뉴스			7:40 SBS 뉴스토리	7:30 문학의 향기	7:30 뚝딱맨
9:30 걸어서 세계 속으로			8:30 20주년 특집 2017 희망 TV SBS	8:00 션뉴스	8:00 출동 슈퍼윙스
10:30 노래가 좋아			10:55 접속 무비월드	8:30 시청자뉴스	8:30 모여라 딩동댕
11:30 영상앨범 산	10:25 영화가 좋다	10:20 리디오스타 스페셜	10:00 김영진의 집대성	9:00 2017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	9:00 너너너
12:00 KBS 뉴스	11:35 고백부부	11:4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1:00 김영진의 집대성	9:30 허 풍선이 과학쇼	9:30 허 풍선이 과학쇼
12:10 동행	12:45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5 예능드라마 보그램 스페셜	11:00 절전동네방네	10:00 김영진의 집대성	10:00 전례드 히어로 심국전
1:00 나눔의 행복, 기부	2:30 매드독	2:20 20세기 소년 소녀	12:00 브리보 마이 라이프	11:00 절전동네방네	10:30 전례드 히어로 심국전
1:15 국의 힘마당		3:30 돈꽃	1:20 2017-18 ISU 쇼트트랙 차월드컵	12:00 션뉴스	11: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 헬로 카봇5		4:45 나 혼자 산다	1:30 2017-18 ISU 쇼트트랙 차월드컵	12:30 시청자뉴스	11:50 지식채널 e
2:20 흥미답2			1:40 스포츠 클리닉	1:30 2017-18 ISU 쇼트트랙 차월드컵	11:55 지식채널 e
2:35 팔도밥상 스페셜			2:00 미운우리 새끼	1:50 CMB 스포츠 2017-2018 도드림V리그 삼성화재 vs 한국전력	12:00 최고의 요리비결
2:55 미워도 사랑해			3:00 SBS 뉴스	2:00 미운우리 새끼	13:00 최고의 요리비결
4:05 생생병사의 비밀		4:45 나 혼자 산다	3:10 사랑의 운동	4:00 미디컬 인	13:30 최고의 요리비결
5:00 U+D 한식			4:50 황금빛 내 인생	4:30 절먹고 잘살고	14:00 최고의 요리비결
5:10 동물의 세계			5:00 해피타임명곡광장 스페셜	5:00 해우공주	15:10 한국기행
5:40 한국인의 밥상			6:10 마스터 키	6:00 션뉴스	16:05 한국기행
6:30 행복한 지도			7:00 고백부부	6:30 시청자 뉴스	16:30 장학퀴즈-학교에 가다
7:00 KBS 뉴스	6:05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7:55 MBC 뉴스데스크	7:00 가보고 먹고	7:00 가보고 먹고	17:40 다문화 고부열전
7:10 디큐궁금		8:30 김영식의 영화대영화	8:00 김영진의 집대성	8:30 김영진의 집대성	18:35 엄마 찾기
8:05 인사이트 아시아 차마고도	7:55 황금빛 내 인생	8:45 돈꽃	8:30 김영진의 집대성	19:2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2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9:00 KBS 뉴스9	9:15 아이돌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9:15 아이돌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9:00 션뉴스	9: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15 극한작업
9:20 특별기획 2부작 일본을 다시본다	10:00 돈꽃	10:00 드림V리그	9:30 시청자 뉴스	10:00 행복비나리	21:05 이것이 아생이다
10:15 도전! K-스타트업 2017	11:00 고백부부	11:15 그것이 알고 싶다	10:10 행복비나리	11:00 다이어트 미	22:00 EBS 디큐프리임
11:15 특선 U+D 다큐멘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11:15 그레이스의 명화 <릉간>		22:55 세계의 명화 <릉간>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40 101세의 프로포즈	7:25 KBS 재난방 센터	6:10 통일전민대	6:00 SBS 뉴스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00 가족의 발견
7:10 평창 국제올림픽 특집 다큐 미드나이트리얼리티, 평창	7:35 영상앨범 삼남자들	6:5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6:1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6: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6:30 희망종경
8:00 일요진단	9:001박 2일	7:0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7:10 씽이야기교자	7:30 운길상의 향기	7:00 꼬마스타 토요
9:00 생방송 일요토론			7:4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7:30 문학의 향기	7:30 소피 루비
10:10 청 소년 드라마 안단테 트 더 유닛	10:30 아이돌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40 해피타임 명작극집	8:35 칭사 특집 UHD 다큐 나를 향한 벽	8:00 션뉴스	8:00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보
11:00 디큐공감		10:40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0:3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9:00 김영진의 집대성	9:00 김영진의 집대성
12:00 KBS 뉴스	12:10 고백부부	12:00 출발! 비디오 여행	10:45 드라마 1부	10:00 김영진의 집대성	10:00 김영진의 집대성
12:10 전국노래자랑		1:15 돈꽃	1:20 마녀의 법정	10:50 연단꽃이 피었습니다	10:30 주제별 프로젝트
1:20 걸어서 세계 속으로		2:10 돈꽃	2:10 돈꽃	11:00 청자전동네방네	11:00 청자전동네방네
2:10 특집다큐 음식에 맛을 더하다, 우유의 유혹	3:30 황금빛 내 인생	3:45 션션TV연예통신	3:00 사랑의 운동	12:00 인기교수	12:00 장학퀴즈-학교에 가다
3:05 미워도 사랑해		4:50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 1박2일>	4:00 미운우리새끼	12:30 인기교수	12:30 장학퀴즈-학교에 가다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 아동 관련 정책제안문 접수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16일 의장실에서 대한민국아동총회 대전지역 아동권리 의장단의장 유에림(노은초 6학년)으로부터 정책제안문을 전달받았다.



전기안전공사·삼성봉사단,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 안전지사(지사장인원형)봉사 20여명은 지난 15일 삼성디스플레이(상무 신진철) 봉사자 20여명과 연합으로 탕정면 간산리를 방문해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농촌주택 노후전기설비 개선 및 LED형광등 교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공주대 총동창회, 빌전기금 2,000만원 기탁 공주대 총동창회 36회 동문들은 지난 15일 공주대에 대학 빌전과 후배양성 위해 써달라며 빌전 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15일 산학협력단에서 대전허브도제지원센터 2017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7여개 기관의 관계자와 참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2017년도 봉사회 리더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경기)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공주 한옥마을과 고마아트센터에서 '2017년도 봉사회 리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충남 지역내 대한적십자사 15개 지구 봉사회 임원 등 총 70여명이 참가했다.



청양군 남양면 분회경로당 노인회, 환경정화활동 전개 청양군 남양면 분회경로당(회장 권오섭)은 지난 15일 남양면 금천리 도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깨끗한 남양을 만들기'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서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 백석대 관광학부특성화사업단, 대학특성화사업(CK-1)의 일환

# '2017 관광 리쿠르팅 엑스포'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관광학부특성화사업단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본부동에서 대학특성화사업(CK-1)의 일환으로 '2017관광리쿠르팅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학부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2014년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았으며, 특별히 올해는 재학생 아이디어 공모로 학부 재학생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 실행해 교육적인 효과까지 거둬들였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채용면접 ▲가족기업홍보존 ▲자기소개서 컨설팅



▲똑똑똑 JOB이라 ▲여행힐링콘서트 특투유 ▲스피치마스터 ▲취업 레디 존 ▲관광기업분석 경진대회 기업별전 등이다.

올해 행사는에는 (주)모두투어,

(주)그랜드코리아레저, (주)레드

는 관광경영학전공 이우진 교수는 "이번 관광리쿠르팅엑스포는 1, 2학년들에게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3, 4학년들에게는 취업준비 역량 배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별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 관광학부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관광분야 대형 특성화사업에 선정됐으며, 2019년 2월까지 국고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2016년도 중간평가에서 우수특성화사업단, 2017년도 연차평가에서는 충청권 대학 중 2위에 선정됐다.

김정환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총 18회 618명 대상

## 소외계층 '함께 떠나는 생태관광' 운영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과 함께 떠나는 생태관광을 총 18회 618명 대상으로 운영했다.

자연체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 층(장애인, 노인, 취약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생태우수지역을 탐방하고 인근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생태나누리와 이토파·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심 있는 환아나 부모 대상으로 하는 건강나누리를 무료로 운영했다

"감동과 행복이 가득한 추억 여

행"이었다는 높은 호응과 찬사를 생태나누리 참여자들로부터 받았으며, 건강나누리 참여자들에게는 "환경성질환의 예방법과 건강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받았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황규태 탐방시설과장은 앞으로도 고종격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 ●동정 ● ● ●

### 가족골든벨 행사

김진수, 새마을문고, 청남도부회장 = 18일 오전 11시 30분 시군문화회장회의를 주관, 이어 오후 1시 서산성연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가족골든벨 행사에 참석 격려.

농협은행 유천동,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최근 고령이나 젊은 층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날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농협은행이 고객들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농협은행 유천동지점 직원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최근 대전시 중구 유천동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발급 방지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본인이 경험한 보이스피싱의 예를 들며 이번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송병배기자

대덕대 김일진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수상



대덕대 김상인 해양기술부사관과 김일진(사진) 교수가 올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17년 전국 교수학습연구대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김 교수는 '전자전공 입문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플립드레인(general) 기반의 STORE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주제로 단독 출품한 교수법이 우수교수학습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본 STORE 모형은 Search(1단계), Team(group) learning(2단계)을 거치고, Oral presentation(3단계), Reinforcement learning(4단계) 및 Evaluation & Reflection(5단계) 학습과정인 플립드레인 기반의 교수법 모형으로서 실무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평가됐다.

특히 해당 교수법은 상호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어려운 공학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였고, 현장적용 기여도와 중심성, 칭의성과 적절성, 수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의 위상도 한층 드높였다.

이정복기자



## 세한대, 한·중 교류 위한 학술세미나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지난 15일 대전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공자아카데미가 공동주관으로 중국 청도대학을 초청해 학술세미나와 학생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세한대 이승훈 총장을 비롯해 남궁승태 교학처장, 최미순 기획평가처장, 손다숙 외사처장, 강창구 공자아카데미 당진 분원장, 세한대 구성원과 중국 청도대학 의수결 부서장, 이열 원장, 종홍군 주임, 육첩 원장, 우홍과 주임, 청도대학 교수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도대학 이열 원장이 1주제로 '지역문화분야 중국 정부 연구 지원체계'를, 2주

## 바로세움병원·대전복합터미널

### 양 기관의 발전 위해 지정병원 협약



대전복합터미널 직원 및 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황인석 병원장은 "대전복합터미널의 직원 및 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지속적이고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희 회장은 "척추, 관절 병원으로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과 지정병원 협약을 맺게 되어 직원 및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송병배기자

이정복기자

## 기고

한기봉  
국민대 초빙 교수/인문중재위원

헬무트 콜은 1990년 거의 무명에 가까운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 연구원 앙겔라 메르켈을 여성청년 부 장관에 발탁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 뒤다. 위대한 독일통일의 아버지는 약관 36세의 메르켈을 '나의 소녀'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05년 소녀는 총리가 되었다.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첫 총리, 전후 최연소 독일 총리가 됐다. 독일인은 그 이후 지금까지 총리관저에서 새로운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는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해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자신이 당시에서 축출한 정치적 대부이자 최장수 총리였던 콜과 같은 16년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3)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혔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는 지난 1월 '2017년 가장 영향 있는 여성 100인'을 선정하며 메르켈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그는 7년 연속 포함됐고 열두 번 1위를 차지했다. 두 해 전인 2015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메르켈을 선정했다. 여성 단독으로는 30년 만이었다. 앙겔라 메르켈이 21세기 첫 4반세기,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사실에 이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메르켈의 정치적·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분석과 일화는 차고 넘친다. 책도 많이 나왔다.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경험과 위기에서 단련되고 만들어지지만, 여성 정치인 메르켈의 경우에는 좀 특별하다.

그의 인간적 성품 자체가 리더십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인간적 면모와 품성과 개인 생활은 정치외교에 비해 별로 알려진 게 없다. 성품 자체가 소탈하

##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권력을 과시하지 않는 힘

고드려내길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가 장관에 발탁되었을 때 독일 정치판은 압도적으로 남성 천하였다. 마흔도 안 된 이혼녀에 아이도 안 낳아본 여자에게 여성청년부를 맡기거나 말이 많았다. 언론도 호의 적이지 않았다. 일찌 '콜걸'을 연상시키는 콜의 여자(Kohl's Girl)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세련된 구서독 정치인의 이미지에 익숙했던 언론은 동독의 촌스런 시골 여자를 대놓고 놀렸다. 콜 총리도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메르켈이 자기 옷을 입고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언론이 뭐라 떠들든 대꾸하지 않았다. 제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고 점수를 따나갔다.

정치는 이미지라고도 하지만 메르켈은 자신을 도드라지게 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다. 여성임을 표 나게 앞세우지도 않는다. 카메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대처처럼 대차지도 않고 헬리티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패션스타로 통하는 이웃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처럼 차림새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화장기 없고 바른 듯 만 듯한 힙스틱, 이발소에서 썩듯 깎은 듯한 솗곳 헤어 스티일, 백스 모양 재킷에 병방한 검은 바지, 등록한 단화... 독일인들은 그 차림을 총리의 유니폼으로 부른다. 그는 자신의 머리 모양에 대한 자제에 대해 "머리를 매만질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만진 머리는 열두 시간 이상 버텨 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스타일 사진이 두 번 국내외 언론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15년 국가부도를 선언한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을 때, 맨 얼굴에 채 밀리지 못한 짧은 머리로 급하게 공관에 출근하던 모습이 하나다. 그 사진은 지금도 '그날의 올림머리'와 비교돼 인터넷을 뺏는다.

또 하나는 정반대다. 2008년 노르웨이의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공연에 초대받았을 때다. 메르켈은 가슴과 등이 과격적으로 깊게 파인 검은 이브닝 드레스에 푸른 숄을 걸치고 왔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사진에는 '드디어 총리가 가슴선을 보여 줬다'는 설명이

붙었다. 한 신문은 '메르켈의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실었다. 다음날 총리 대변인은 총리의 반응을 이렇게 전했다.

"개관한 오페라하우스보다 드레스에 이름이 솔린 상황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 행사의 주인공인 노르웨이 공주보다 관심이 더 집중돼 미안하게 생각한다. 세상에는 드레스보다 중요한 일이 많다."

지난 여름에는 영국의 한 언론이 메르켈 총리가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 북부 산악 휴양지의 한 호텔에서 매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늘 같은 웃이었다며 보라색 체크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차림의 5년간 사진을 즐거워 보여줬다. 그는 공식석상에서도 같은 옷을 여러 차례 다시 입고 등장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메르켈은 총리관저에서 살지 않는다. 남편과 베를린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문에는 남편 요아힘 자우어 훌볼트대 화학과 교수의 이름이 붙어 있다. 남편 역시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린다. 아내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휴가를 떠날 때도 메르켈은 관용기로, 남편은 민간 여객기로 따로 간다.

메르켈은 두 번 결혼했지만 자녀는 없다. 물리학자와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했는데 첫 남편의 성인 메르켈을 고집하고 있다. 집에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며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며 쉬는 걸 좋아한다. 다섯 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 사저에서의 생활은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 힘을 가졌다.

남에게 드러내길 싫어하지만 소탈하고 특권을 내세우지 않는 그는 시장이나 약국·미용실·음식점 같은 의외의 곳에서 시민이나 언론과 마주쳐 사진이 찍힌다. 2015년 조선일보 베를린 주재 기자가 동네 수퍼마켓에서 메르켈을 만난 기사와 사진을 보도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꼬깃꼬깃한 장바구니를 들고 전용차에서 내려 1유로 동전을 넣고 카트를 꺼냈다. 1993년부터 매주 이 곳에 들려 생필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이날은 종이에 적어온 걸 보면서 오렌지, 가지, 양배추, 로션, 주방용 타월, 레드와인, 초콜릿,

밀가루, 토마토소스 등을 사고 계산대에서 차례를 기다리다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 동네의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다. 주인도 쇼핑객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를 다룬 평전을 보면 메르켈은 폐인문학이며 학구적이다. 그런 취향이 지도자의 덕목인 혜안과 통찰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메르켈은 러시아와 러시아 역사에 능통한 문학 애호가다.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체홉·푸시킨 책을 탐독한다. 2014년에 회갑을 맞았는데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주최한 회갑 선물은 역사 강연회였다. 저명한 학자 위르겐 오스터할벨이 '역사의 시간적 지평' 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가 직접 초대했다고 한다. 이 생일파티 때문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했던 유럽연합 정상회의 날짜가 연기됐다. 그게 유럽에서의 메르켈의 위상이다.

메르켈의 인간적 품성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소박한 차림, 겸소한 생활, 소탈한 품행이다. 마조 같은 상남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똑심에, 이웃집 아줌마 같은 편안함이 정치적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분석한 정치평론가가 많다. 그래서 독일인이 불인 그녀의 별명은 '무티(Mitti, 엄마)'이고 그녀의 리더십은 '엄마 리더십'이라고 불린다.

그에 대한 독일 언론의 평가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 "메르켈은 권력을 가진 것을 특별하지 않은 일로 바꿔 놓았다. 그녀는 권력을 과시하지 않는 힘을 가졌다." 메르켈은 2010년 G20 정상회의 때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국내 몇몇 언론이 두 지도자가 어려 점에서 달았다고 기사를 썼다. 여성·비슷한 나이·보수(정당)·전공(이과)·분단의 역사를 거론했다.

그로부터 7년 후, 한 여자는 4연 임에 성공했고 한 여자는 임기 중에 장실에 갇혔다. 그런데 두 여인을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간과했다. 메르켈은 동독의 작은 교회 가난한 목사의 딸이었다. 그는 자수 성가했다. 박 대통령보다 2년 4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그때에도 눈가와 입언자리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였다.

## 사설

## 비상 걸린 '홀몸 노인' 건강

호자 사는 노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건강 행동을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흡연과 운동부족, 짬식 섭취 등이 대표적인 위험 생활습관으로 꼽혔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에 견줘 흡연율이 1.80배 높았다. 같은 조건에서 호자 사는 여성 노인의 흡연율은 남성보다 높은 1.86배에 달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팀은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60~74세의 서울시 거주 노인 4천13명(남 1천814명, 여 2천199명)을 대상으로 호자 사는 노인,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으로 나눠 평상시 생활습관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노인 중에는 132%(532명)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성별로는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여성의 18.4%(404명)로 남성 노인의 혼자 사는 비율 7.1%(128명)보다 높았다.

문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전반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 관련 기관과 주변의 가족들은 흡연 위험에 노출된 혼자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과 설득 등의 접근을 시도하고, 운동왕이 적은 경우에는 운동 동반자를 구하도록 독려하거나 지역 사회 단체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방분권' 강화 기대 크다

정부가 개헌에 앞서 하위 법령부터 고쳐 지방분권 강화에 나선다니 기대가 크다.

법제처는 지방입법권 강화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 않은지 보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가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 조문 20개를 찾아냈다. 개정안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로

## 오늘의 소사

## 기고

유성준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센터장)

## 4차산업혁명, 사람을 모아, 인재를 모아야 한다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인력을 키워 놓으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 대기업으로 해당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국내 공공기관 중 하나는 공공기관 급여체계상 높은 급여를 줄 수 없는 이유로 준비된 고급 인력의 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력 유출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 글에서는 두 가지로 그 방법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으로 기술 개발 및 자체 인력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 방법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과목을 전 학과 공통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 해결방안이다. 대학에서 또는 공사설계 기관에서 육성하는 인력이 중소벤처기업에 있는 인력들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필자가 운영해오고 있는 세종대학교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그동안 필자는 소속된 센터는 약 200개 중소벤처기업과 만나 약 700 회의 회의 또는 기술개발협의회를

뿐만 아니라 향후 인공지능도 공통 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출발로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느 한 전공 분야의 전유물이라기 보다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액셀처럼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망에서의 의견 수집·분석 및 예측·분석·예측·예측 등 사회 전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동센터는 공격적인 홍보는 자체하고 있다. 홍보를 공격적으로 할 때에는 자문 요청을 해오는 기업이 너무 많아. 모든 기업에 충분한 지원 및 자문을 해줄 수 없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산학협력을 통한 지원에의 수요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각 지역별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4차산업 관련 기술의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로 최근 대구광역시와 영남대학교가 협력해 이러한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동센터는 해당센터를 출범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간단한 참조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세종대학교에서는 이번 기술학기부터 대학원 공통과목으로 빅데이터 과목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원이 대학원 예과과 과목 정원보다는 많은 50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쳐 이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대학원생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빅데이터

##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 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2	TEL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학교 폭력 예방 선서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